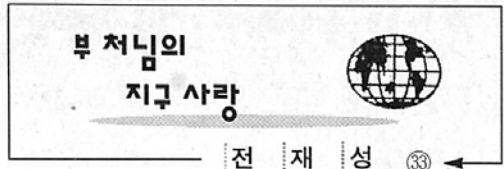


# 정서불안 · 기억력 상실 · 폐암등 유발

부처님 당시 출가라 하는 것은 집에서 집없는 곳으로의 출가였다. 출가한 사람은 주로 나무아래나 바위, 동굴에서 수행했고 우기에는 비를 피해 정사에 안주했다. 수행자들은 언제나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야외의 공기속에서 미세하게 호흡을 즐기며 깊은 선정에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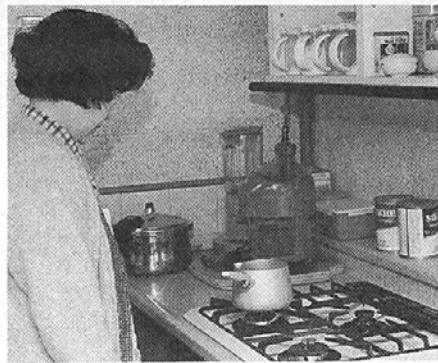
## 실내공기 오염

그러나 세속사회는 집을 중심으로 점차 밀폐화되는 주거공간을 발달시켜 왔다. 특히 산업사회 이후 실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실내공기 오염이라는 새로운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오늘날 현대인은 하루 24시간중 80% 이상을 실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체에 미치는 실내공기의 오염이 대기오염보다 더 크다.

실내공기는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주방·난방 연료 및 인간의 활동에서 생겨나는 각종 공해물질로 오염되어 '발암중추군'이라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건축자재에서는 라돈, 포름알데히드, 석면과 같은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라돈은 방사능이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대리석, 벽돌, 모

래, 진흙 등에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체에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나타난다. 서울시내의 라돈농도는 최저 1.5pCi/L에서 최고 9.9pCi/L로, 대체로 국제기준치 2.7pCi/L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단열재나

내열성이 강하다. 그러나 실내공기가 석면가루에 노출되었을 경우 그것을 흡입하면 석면증 또는 폐암을 유발시킨다. 석면가루로 생긴 병은 불치에 가까우며 6개월내지 1년이면 목숨을 잃는다. 주방연료 및 난방연료에서도 많



◇방안의 건축자재·난방연료·가전제품 등에서 유해한 가스가 발생한다.

## 건축자재·가전제품등서 질병원인 가스발생 서울의 먼지 환경기준치보다 2~3배 초과

가구의 칠, 접착제, 흡연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데, 동물실험에는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눈, 코, 목에 자극증상을 나타내며 오랜동안 노출되었을 때 정서적 불안, 기억력 상실, 천식, 월경불순, 불임, 빈혈 등도 초래할 수 있다. 석면은 석면타일, 석면슬레이트 등의 건축용 자재와 가정용품, 전기제품 등에 널리 쓰이는 것으로

는 유해한 가스가 발생한다. 최근 많이 사용하는 프롤판가스나 도시가스가 연소될 때에는 석유류보다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적지만 이산화질소의 발생량이 많아질 수 있다.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짧은 시간 노출되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폐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 낮은 농도에서 장기간 접촉하면 만성 폐질환을 일으키며, 기관지염, 폐기능저하를 가져온다.

또한 실내공기 가운데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먼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호흡성분진은 폐포까지 도달해서 염증과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서울의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역의 이러한 부유분진의 농도는 현재 환경기준치보다 2~3배 초과하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소와 같은 작업장에서는 석면폐증이나 규폐증 등을 일으킨다.

이러한 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신선한 공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실내에 각종 미생물의 군집이 생겨나서 각종 세균과 곰팡이, 진드기 등의 사식체가 되며, 이들은 인간의 활동으로 부유미생물이 되어 호흡기에 침투함으로써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한국불교대 교수)

## 시론

### 비극의 또다른 윤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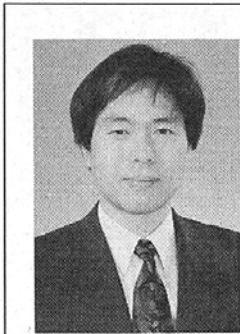
은 국민을 덮친 경악과 분노와 허탈이 사태를 용변하고 있는데 새삼 무슨 책임을 논하랴. 국내의 언론들은 친절하게 그 격앙된 감정을 대리배설해 주고 있고, 외국의 언론들까지 선진문명의 비상임이사국에 어울리지 않는 국가적 수치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과문한지는 몰라도 전직 대통령이 사과를 위한 회견을 자청하고, 그 무대에서 눈물을 찍어낸 거대한 연출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듯하다. 조선민족은 역시 정서적이다. 성수대교와 삼풍에 격노하고 좌절하다가 어느새인 듯 까마득히 잊어먹는가 하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석고대죄의 눈물 앞에서는 동정의 기미를 어찌 못하는 민족이다.

권위와 권력을 행사해야 하며 그 판단과 추진에 따르는 전면적 책임을 한몸에 져야 한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면장조차 그것이 권력이라면 그것은 보통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 잊지말아야 할 교훈

보통사람의 사태를 부르짖었던 6공은 출발부터 비전이 없었다. 비전이 없었으니 별다른 유위(有爲)가 있을 리 없다. 오히려 '물풍'이라고 했을까. 식견과 경륜과 자기훈련을 결여한 보통 사람이 몰두할 가치는 세속적 가치밖에 없을 것은 당연지사.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대체 얼마나 끌어모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쓰고 남긴 것이 수천억이라니, 대체 이게...

그렇지만 그 구차한 모습이라니... 나는 그가 해먹은 이른바 통치자급의 전문학적 액수보다 타 입지에 실린 그 창백한 얼굴, 그리고 그 눈물을 희소 한듯 흘리고 있는 모습에 더 큰 민족적 수치와 분노를 느꼈다.



한 형 조 (정문연 교수 · 본지 논설위원)

유세전에서 "나 보통사람이요" 하고 나서 때부터 나는 알아보다. 그야말로 지극한 아무 교활한 기만이 아닌가. 권력의 칼을 내리고 시정의 당선네들과 같이 놓아주었다는 달콤한 유혹은 그들이 권력을 잡은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서천쇠가 웃을 노릇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았다.

그는 위대한 보통사람상이 아니라 용렬한 보통사람상을 이 역사 앞에 거울로 남겼다. 신화는 깨어지고 자존심은 상처받았다. 대통령을 제왕과 동일시하는 부리의 무의식이 청산되지 않은 한민족에게 그는 탈권위와 탈신화의 역사적 소임을 다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그것 또한 비극의 또 다른 윤회(輪廻)라고 생각한다.

비자금 소속에 불자들은 화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사의 기만이 아닌가. 권력의 칼을 내리고 시정의 당선네들과 같이 놓아주었다는 달콤한 유혹은 그들이 권력을 잡은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서천쇠가 웃을 노릇임이 분명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았다.

#### 보통사람이 못하는 일

완장을 차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 그 완장의 논리 앞에서 친구도 삼촌도 이웃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식민과 분단의 분열적 상황 하에서 처절하게 실감하고서도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은 권력의 속성과 생리를 잘 모르고 태고 이래의 낙관을 안고 산다.

단언컨대 대통령은 보통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보통사람이어서도 아니다. 최고권력을 위한 전쟁의 치열함과 파멸적 함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바, 그 전쟁의 긴장과 삼엄함은 보통사람의 신경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고지 위의 권력은 또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일까. 이 또한 보통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때로 국가적 요청 앞에 합계운 기획과 결단을 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그렇고 그런 일이라고 담당하게 거부 좌불과 있는가. 화를 내서도 안되고 초연해서도 안된다. 사법계(司法界)의 중중무진(重重無盡) 속에서 누가 인연의 그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생사윤회(生死輪廻)는 개인의 종자(種子)와 현행(現行)의 수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사회적 역사적 지평을 갖고 있는 것을, 생멸(生滅)을 떠난 진여(眞如)가 없다면 우리는 그 생멸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리고 진지하게 통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바, 전세의 속업(宿業) 또한 무분별(無分別)의 소송적 초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승적 연기(緣起)의 지숙적 정화를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리하여 이 분노와 좌절과 충격을 복음(福音)의 화두(話頭)로 오래도록 잊지 말자.

제2의 아우슈비츠인 다하우의 유태인 수용소에는 현대 철학자 산타야나의 다음과 같은 경구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들에게는 그 기억을 일깨워 주기 위해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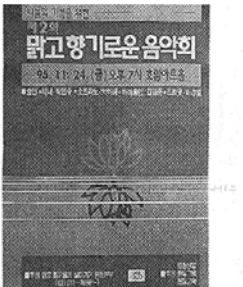
## 신행수첩

### 맑고 고운 향기를 청소년에

24일 호암아트홀 음악회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가 열린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회주 법정)'는 오는 24일 저녁 7시 호암아트홀에서 나눔의 기쁨을 위한 제2회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를 갖는다. 불자들의 따뜻한 가슴 한 자락, 경건디 정겨운 손길을 이룰 푸른 눈망울의 선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것이다.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티켓에는 불우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이 포함되어 있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일구는 일에 불자들이 앞장서야 하는 것은 자비종도들의 당연한 의무를 생각할 때 이 음악회는 더욱 아름다운 소리마당으로 다가올 것이다. 티켓예매는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02-741-4696~7)'나 책방여시아문(02-737-0696)에서 한다.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포스터.

### 사찰예절의 모범 태국 교육방송 24일 방영

태국의 국교는 불교. 어디를 가든 탁발승을 볼 수 있고 예절에 항상 신경써야 한다. 태국에서는 승려에게 말을 걸거나 쳐다보거나 부딪치거나 하면 그 것보다 더 큰 결례는 없다고 한다. 교육방송은 오는 24일(금) 밤 9시 25분에서 35분까지 10분간 '지구촌 예티켓-태국의 불교사원'을

통해 단정하고 공손한 마음이 깃들어 있는 사찰예절의 모범, 태국을 찾아간다.

사찰에 갈 때는 신성한 마음이 집이 중요하며 이것만 지킨다면 국내나 태국에서 환영받는 참배자나 여행자가 될 것이다.

### 무사고 기원 염주달기 광주 선덕사 캠페인

버스나 택시를 타보면 '오늘도 무사고'라는 작은 문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교통사고가 세계적일만큼 가족과 주위사람들의 근심도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 선덕사는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립하고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염원에서 22일 오후2시 광천동 시외버스터미널과 택시승강장을 중심으로 '무사고 기원 염주 달리기'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항상 과다한 운행을 해야 하는 영업용 택시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전운행을 기원하며 개별 택시마

## 자비사랑 담긴 하루차집

17일부터 관음포교원 등 4곳서 열어

따뜻한 차 한잔에 온정을 담아 온독한 범우애를 꽃피우고 불법의 자재함을 느껴보자. 연말을 앞두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지나는 1년을 되돌아보는 일일차집이 교계 각 단체서 잇따라 열린다. 관음포교원이 개원 7주년을 맞아 17일 '정바아를 위한 일일차집'을 열었고(863-9469), 대한불교부인회도 오는 24일 로

마다방서 '무의탁 노인 및 양로원 방문 기금모금 일일차집'을 연다(736-5035). 또 오는 12월 2일에는 개동 5주년을 맞는 지비의 전화가 불교114 시연회를 겸한 일일차집을 녹수장선사 연다(737-7378). 생명공양실천본부도 12월2일 생명나눔 운동화산을 위한 일일차집을 샘터다방서 연다(734-8050).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있다. 불교 신행연구원 이 오는 26일 바로 이곳 도피안사의 비로자나부처님과 심원사의 지장보살을 찾아 문화기행을 떠난다.

### 피안의 땅 철원을 찾아 불교신행, 문화기행

휴전선으로 하나의 군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 민족분단의 현상이 되어 버린 슬픔의 땅 철원. 하지만 이곳에는 기도염이 높기로 이름난 두 불상이 있어 이곳 사람들의

##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會 議員

二木堂 瑞雲 大宗師 世緣已盡 乙亥年 11月 15日(陰 9月 23日)

午前 1時 於直指寺 西別堂 入寂 茲以告訃

###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會 議長 慧庵 · 上佐 世雄 合掌

---

#### 瑞雲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 委員會

<p><b>증명</b> 율하, 서웅</p> <p><b>장의위원장</b> 혜암</p> <p><b>부위원장</b> 승찬, 원담</p> <p><b>위원</b> 율산, 관웅, 고송, 서암, 승찬, 벽암, 비룡, 응담, 도천, 지중, 운경, 원담, 도원, 일타, 청하, 수산, 성수, 도견, 송담, 지유, 진재, 동고</p> <p><b>봉행위원장</b> 율주</p> <p><b>봉행위원</b> 지관, 암도, 승산, 초우, 혜정, 탄성, 율탄, 능가, 광덕, 고산, 법안, 보성, 도성, 덕명, 법흥, 지명, 철웅, 무진장, 율서, 도원, 혜성, 화연, 정관, 법정, 정영, 율운, 학능, 종하, 현성, 벽파, 향운, 도문, 능해, 종산, 이두, 진철, 동춘, 직명, 고우, 무비, 허연, 천운, 인환, 성운, 설정, 성타, 현근, 정현, 지홍, 현해, 무공, 설조, 지은, 도영, 지선, 종열, 현고, 종원, 혜산, 운경, 운포, 허주, 태정, 휴암, 홍고, 원명, 근일, 종원, 현호, 현관, 태허, 재근, 성운, 자우, 종상, 삼지, 법장, 지원, 대우, 천재, 법조, 법성, 시인, 삼보, 명성, 지성, 법철, 현광, 자광, 정락, 종범, 승산, 정산, 율호, 혜산, 도각, 원산, 백운, 선래, 종래, 혜중, 태연, 태운, 혜춘, 상륜, 광우, 명성, 묘인, 태경, 자민, 진관, 명문, 일초</p>	<p>서돈각, 권익현, 박완일, 김태호, 황수영, 이기영, 최계구, 엄상호, 송석구</p> <p>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임직원 일동, 중앙총회의원 일동, 조·계심 회계위원 일동, 소청 심사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선거 관리위원 일동, 중앙법원 관리위원 일동, 교육위원회 일동, 직능대표 선출위원 일동, 군중법사단 일동, 전국 포교사 일동, 전국신도회임직원 일동, 전국 향승 일동, 각 신행 단체장 일동, 전국 경승일동, 각종립학교 임직원 일동</p> <p><b>집행위원장</b> 녹원</p> <p><b>도감</b> 법성</p> <p><b>법명진</b> 명진</p> <p><b>의전</b> 법동, 영배, 법보, 현강, 수경, 원학, 선광, 지진, 진담, 덕조, 수진</p> <p><b>지빈</b> 도진, 연수원장, 운문사 대중 10명</p> <p><b>재무</b> 서강, 장명, 혜관, 도홍</p> <p><b>홍보</b> 정휴, 향적, 이태형</p>	<p><b>섭외</b> 무관, 대혜</p> <p><b>경호</b> 혜창, 홍관, 원공</p> <p><b>다비장</b> 등각</p> <p><b>매표소</b> 상현</p> <p><b>시자</b> 정신, 청암사 대중</p> <p><b>원주</b> 보륜</p> <p><b>호상</b> 석주</p> <p><b>문중대표</b> 관웅</p> <p><b>산중대표</b> 녹원</p> <p><b>문도대표</b> 세웅</p> <p><b>은제자</b> 세웅, 종래, 의룡, 상목, 세연, 수동, 종선, 종범, 무선, 대선, 계성, 인상, 세법</p> <p><b>법제자</b> 금산, 세중, 송오, 수암</p> <p><b>손제자</b> 인호, 성대, 장운, 종암, 덕천, 벽보, 청광, 석관, 학해, 묘인, 덕운</p> <p><b>증손제자</b> 해광, 해경, 범우, 혜오</p>
--	---	--

## 大韓佛敎 曹溪宗 瑞雲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 委員會